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영적 부흥과 열매있는 삶을 위한 가을 사경회

- 주제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19)
- 강사 -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담임)
- 기간 - 9월6일(월)~10일(금)  
5일간 매일 새벽5시



초가을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찬  
치를 베풀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새벽을 깨우면서 구름  
때 처럼 물려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하  
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강사: 이수영목사

· 강사 약력 ·

-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철학과(문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문학석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교역학 석사)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대학교(신학박사)
-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 영락교회 협동목사
- 현. 한국 칼빈학회 회장  
아시아 칼빈학회 회장  
새문안교회 담임목사

### 서울교회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요한복음 11장40절 말씀을 붙잡  
고 지난 1991년 11월 24일 추수감사절에 교회를 설립한 이래 9년만인 2000년  
12월25일 성탄절, 이곳 대치동 예배당에 입당을 하였습니다.

열린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는 첫째, 천국시민 양성 둘째, 만민에게 전도  
셋째, 빈약한 자 구제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국 시민양성을 위해 열린프로그램을 매년 2학기씩 개강하여 성도들  
과 이웃주민이 스스럼없이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열린프로그램을 소개하면

- **서울성경대학**- 이번 학기가 제16학기째로 9월6일(월)개강합니다. 성경대  
학은 좀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신  
청하여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야고보서와 로마  
서, 사무엘상, 빌립보서 등 4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 **서울주부대학**- 8학기 재인 주부대학은 9월7일(화) 오전 10시에 개강합니  
다. 가정에서 여가생활을 원하시는 주부들이 부담 없이 들  
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가정생활에 유익이 되는 강의를 가  
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살롬경로대학**- 제9학기 살롬경로대학은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도 하고 훌륭한 강사를 초대하여 좋은 강

의도 함께 듣고 울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여가생활도 보  
람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만민에게 전도를 위해 서울교회는 모든 성도가 이웃주민들에게 천국복  
음을 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덩거나 혹은 추운 날씨를 무릎 쓰고 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100교회운동, 비전2020운동, 해외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셋째, 빈약한 자 구제, 서울교회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자 매주 금요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4년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가을에 열린 이웃사랑 교회사랑 열린바자 기간 동안 얻은 수  
익금 전액을 강남구청에 전달하여 환경미화원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  
장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추석위로금으로 크게 사용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교회로 오십시오.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4-주일저녁 9시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a href="http://hosanna.tv">http://hosanna.tv</a> ) · 기독교 TV -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



# 영적 올림픽

(고린도 전서 9:24-27)



이종운 목사(서울교회 담임)

인생에는 play again이 없습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 바른 목표를 정하고 바른 목적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 3S(Sex, Speed, Sports)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매스컴들이 사회나 문화, 종교 보다는 스포츠에 대한 기사를 더 비중있게 다룹니다. 하버드대의 어떤 교수는 강단에서 성경책 대신 축구공을 올려놓는다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열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여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 28회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와 비슷한 경기가 있었는데 이스무스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이스미안 경기장에서 3년에 한 번씩 각종 경기를 열었습니다. 고린도에 위치한 이스미안 경기장에서 권투와 달리기 경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도들 모두는 영적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로 생각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인생 경주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경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맥 빠진 경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기에 나가지도 못하며 변두리를 맴돌기만 합니다.

## 1. 바른 목표를 정해야 한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은 많으나 그 중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리 좋은 속담 같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면 처음부터 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면 그것은 탈선입니다. 또 목표를 이리 저리 옮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흔들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와 목적은 다른 의미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의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따기 위한 목적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부를 위해, 어떤 이는 명예를 위해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금메달을 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을 설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14). 과거를 들춰서 나올 것은 더러운 것뿐입니다. 성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전진하되 바른 목표와 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27절).

이 말씀은 헬라어로 '두라고고'라고 읽으며 '중을 삼는다'의 뜻입니다. 노예를 만들기 위해 주인은 끝없이 매를 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완전히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와 목적을 정한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성도에게 절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덕성입니다. 자기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영적인 올림픽에서 우승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지만 영적 올림픽을 하는 성도는 영원히 죽지 않을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영적인 경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목표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 2.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

운동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패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 경주에서는 누가 빨리 뛰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능력과 여건 가운데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주님은 부자의 현금보다 가난한 과부 엽전 두 닢을 받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닢은 그녀의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하였고 관재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바치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위하여 목적을 향해 싸우면 힘들 때 뒤로 물러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지언정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 3. 법대로 달려야 한다

우리 속담에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법이야 어떠하든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딤후 2:5). 스포츠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이유는 법을 지키면서 경기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월계관을 머리에 쓴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법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원하는 사람마다 골고다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구원의 도리며 영광의 방법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칙을 하면서 남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인생에는 play again이 없습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 바른 목표를 정하고 바른 목적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올림픽에서 비전과 충성과 순종의 원리를 따라 싸워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루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찬양대 양성반으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성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시:150)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은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이며 의무입니다. 서울교회 찬양대원이 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준비코스인 찬양대 양성반의 개강이 9월5일(주일) 오후 1시30분에서 601호에서 있습니다. 찬양대 양성반에서는 찬양대원의

자질에 필요한 윤영국 지도목사님의 영성교육과 박정선 장로의 지도로 호흡법, 발성법, 악보 보는법, 음악이론, 절기예배음악 등에 대한 공부를 7주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찬양대 양성반은 서울교회 교회학교의 하나로 각 찬양대의 찬양 대원으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찬양대 양성반의 7주 교육을 수료해야 찬양대원으로 봉사가 가능합니다. 9월 5일, 찬양대 양성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 결혼예비학교 개강

오늘 5일(주) 3시20분 403호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형식적인 "결혼식 준비"가 아닌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결혼준비"를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3일까지 5주간의 일정으로 매주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20분까지 403호에서 열린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참석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 바란다.

## 8월 새가족 환영회

지난 8월중에 등록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동엽 강성국 강윤구 강창진 강재현 강하연 강현섭 고광석 고광재 고성진 공해순 구귀순 구영태 구재모 김경주 김남경 김대경 김덕원 김명보 김미성 김민선 김민지 김병일 김영문 김용자 김옥선 김용현 김원용 김인경 김정자 김정재 김정희 김중근 김지덕 김지훈 김진영 김현민 김형배 김훈민 나상수 나창일 노희남 류경학 류현민 문성희 문정은 박소연 박인숙

박정호 박찬욱 방정미 배건희 서남기 서승덕 서지은 서지희 성동훈 손준성 손혜진 송옥수 송중순 신봉철 신부식 신성호 신용구 신진화 신현승 양주희 오규원 오대현 오병석 오원근 오윤택 오채린 오현근 오현우 유현주 이기쁨 이동수 이루리 이보희 이부순 이선호 이영미 이영조 이예훈 이운미 이은정 이임자 이재화 이정인 이정희 이춘삼 이희숙 전대영 전영호 전은미 정미자 정은희 정현정 정희정 조미향 조호연 주용준 지현경 최승호 최정인 최정호 추미자 한진희 홍성수 황미숙 황용경 이상 113명

## 신간서적 발간

-성경난해구절 해설-

「누가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죄를 용납하실 수 없음을 강조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죄인을 공의롭게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 이것은 하나님께 큰 문제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풀여졌다. 사실 인간적 사고로는 해결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때 하나님은 즉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혼란도 없었고 대답을 찾기위한 몸부림도 없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난해한 문제로 보는 우리 마음에 있을 뿐이다. (본문 중에서...)

이중운 목사의 새로운 저서 '성경난해구절 해설'이 책자로 발간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보면 종종 만나는 오류나 모순으로 보이는 구절들을 성경 무오설의 입장에서 확실히 입증할 만한 근거를 들어 제시하며 논리적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구입은 총판을 맡은 생명의 말씀사, 전국서점, 그리고 우리교회 서적부에서 가능하다.



순례자 기획기사 - 드리는 자의 기쁨 ③

## 과부의 엽전 두 닢을...

나역녀 권사(11교구)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힐 듯 더운 여름이 영 같 것 같지 않더니 계절의 순환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가을을 우리 곁으로 보내셨습니다.

좋은신 하나님께서 가을을 맞이하며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치동 예배당에 입당할 즈음 기도하던 중 잠깐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는 적이 있습니다. 강단에 서계신 목사님께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리고 예배당에 어찌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기쁜 마음으로 잠을 깰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마음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소원하여 그런 꿈을 꾸었는가보다고 했습니다. **얕으나** 서나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하였고 속히 헌당을 하여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소원하였는데 이제 헌당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얼마나 기쁘지요. 모쪼록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손길을 통하여 넉넉한 가운데 헌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늙은 여종도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 못지않습니다. 지난 2001년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뇌졸중으로 3년가량 병상에 누워 있다가 합병증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의 장례를 잘 치르고 가족들이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린 후 아들 이강인 집사는 장례비를 제외한 부의금 전부를 저에게 주며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데 쓰라고 합니다. 그 돈을 보며 저는 차마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꼭 건축헌금으로 이름을 지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반대하면 어쩌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모두가 어머니 좋은신 대로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친구들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비상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비상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더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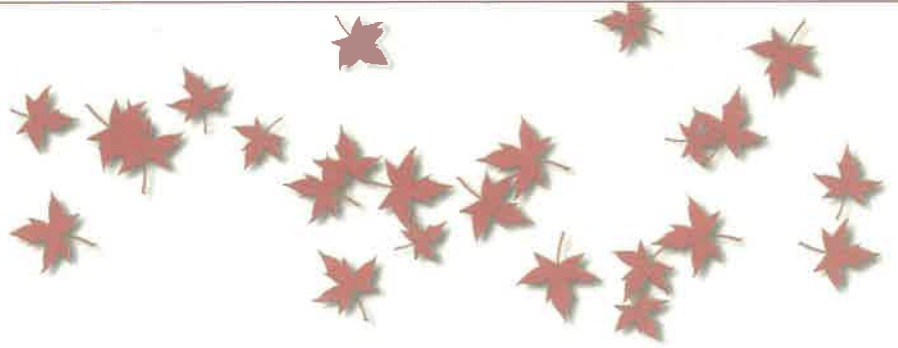
이제 헌당을 위한 바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헌당을 못하시겠습니까? 과부의 엽전 두 닢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어린 손길을 기다리시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늙은 여종도 이번 건축헌금에 참여하고 바자회의 한 모퉁이에서 온 힘을 쏟아 엽전 두 닢을 바치려고 합니다.

### 동정

- 이중운 목사는 9일(목) 장로교 신학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전광영집사(13교구)는 9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미국뉴욕(Kim foster Gallery 와 Michelle Rosenfield Gallery)에서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 강철해 전도사 (2교구 강중심집사·전인화 권사 삼남) 목사안수: 9월 7일 미주한인 장로회 서노회 남가주 동아인교회
- 주간 식당봉사: 바울 남선교회(9월5일) 엘리야 남선교회(9월12일)

# 이웃사랑 · 교회사랑 열린바자

· 기간: 9월 15(수) 12시 30분 ~ 17(금) 오후 7시  
· 장소: 서울교회



건어물



각종 과일



각종 곡류



가전제품



컴퓨터



스포츠 의류 · 용품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가을사경회 (9월 6일~10일)와 현당을 위하여
2. 이웃사랑 · 교회사랑 바자를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4. 2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 ·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5.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